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정애



흔히 가을은 사색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창밖에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하나 둘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까지의 삶과 인생에 대한 물음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가을의 정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삶에 대한 물음과 자기 성찰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필자는 그 해답을 독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힘은 21세기 지식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행 학습과 주입식 교육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없으며,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사고력의 저하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릴 적 마음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미래를 열어가자는 도서관을 상상해

작은 도서관을 생각하다!

봅니다. 굳이 성공이라는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일류대학에 보내기 위해 열심히 학원을 보내는 것이 자식을 위해 더 나은 일이라 믿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긴 여정 속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이며 생각하는 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까운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책을 접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굳이 입시를 따져보더라도 독서는 토론과 논술의 밑바탕이며,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개인이 읽은 활자의 양과 지적 수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되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고층 아파트들과 건물들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읽을거리를 접할 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책을 읽지

이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이 아닌 꿈을 꾸는 '부화기'같은 도서관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작은 도서관들은 문화와 창조 도시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릴 것입니다.

책을 읽을수록 생각하는 힘은 커지고, 읽고 싶은 책은 더 많아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순환을 통해 얻어진 생각하는 힘은 개인의 교양과 문제 해결 능력뿐 아니라, 삶의 통찰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풍요로운 삶뿐만 아니라 함께 소통하는 사회를 통해 국가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작은 도서관이 있고, 그 곳에는 꿈을 키워가는 많은 이들이 있고, 그리하여 독자적인 문화의 중심이 되어가는 광주를 상상해 봅니다. 이제부터 그러한 꿈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떨까요?

<전남대 의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5·18 왜곡' 이영조 위원장 즉각 사퇴해야

이영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국제학술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민중 반란'으로,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명칭 그대로 우리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이 과거사를 왜곡하고 분란을 조장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니 분노마저 치민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에서 발생한 민중 반란'이라고 표현하고,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한 폭동'이라고 매도했다는 것이다.

위원장의 역사의식과 사고방식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지난 1988년 이후 '5·18'을 공식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범정부적으로 기념식을 치르고 있지 않거나, 5·18이 반란이라면 그 반란을

기념하는 국가와 대통령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5·18은 1980년 그날, 민주와 인권, 평화의 횃불을 높이 들며 피로서 이 땅에 민주화의 초석을 이룬 역사적 사건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건으로 '광주민주화운동'(28.9%)을 1위로 꼽고, '4·19'(26.3%)를 그 다음으로 택한 것이 이를 말해 주는 것이다.

제주 4·3사건 역시 지난 1999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됐다'고 공식 사과한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영조 위원장은 자격도, 자질도 없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당장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일 뿐이어서 '5·18'을 공식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범정부적으로 기념식을 치르고 있지 않거나, 5·18이 반란이라면 그 반란을

금호고속 '64년 무분규' 개선 안 된다

금호고속이 1964년 참사 이래 이어온 '64년 무분규' 전통이 깨질 위기에 직면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금호고속지회가 지난 19일 정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4%가 파업에 동의한 것이다.

금호고속의 노사 간 과열은 '한 지붕 두 노조'에서 비롯됐다. 사내에는 한국노총 산하 '금호산업 고속사업자부 광주'가 있지만, 지난 7월 일부 조합원들이 민노총 산하 금호고속지회를 따로 설립하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졌다.

지회는 "사측이 '단체교섭'을 국가처분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어 정의행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회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시점은 이미 기존 노조와 교섭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복수노조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내년 7월 전에는 지회의 협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는 금호고속 내부문제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회사나 지역경제가 처한 여건을 생각할 때 '64년 무분규' 역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금호그룹은 지금 '위크아웃' 상태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태기업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그들 회장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다행히 지회가 곧바로 파업행위에 돌입하지는 않을 듯하다. 사측이 단체교섭에 임한다면 모든 계획과 일정을 뒤로하고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회사와 그룹, 그리고 그동안 성원하고 키워준 지역사회를 위한 방법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64년 무분규'의 자랑스런 전통을 깰 수는 없지 않은가.

無等鼓

세상에서 가장 순한 눈을 가진 동물은 아마 소일 것이다. 무덤덤하지만 그처럼 순박하고 꾸밈없는 눈길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비단 '워낭소리'의 최노년대 소만 눈이 맑고 큰 것은 아니다. 그 안에 은근과 끈기, 우직함과 총직함이 담겨 있다.

우리 민족은 오랜동안 소와 함께 해왔다. 구상기 유적에선 뼈가 출토되고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등장한다. 신라 지증왕 무렵엔 이미 소를 이용해 밭을 가는 우경(牛耕)이 시작됐다.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큰 일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확한 곡식이나 물건을 나르는 데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단순한 가축을 넘어 한 식구나 다름없었다. 가족을 뜻하는 구(口)자를 붙여 생구(生口)라고 부를 정도였다.

우리 고유의 소 품종인 한우가 위기를 맞은 것은 지난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부터다. 당시 농촌경제연구원 한우값이 최대 39%까지 폭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 쇠고기

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이듬해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하지만 수입 개방 이후에도 한우의 산지가격은 울 상반기까지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특유의 '신토불이' 의식에 국산 쇠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이력제 정착도 한 몫했다. 사육수도 두 덩달아 급증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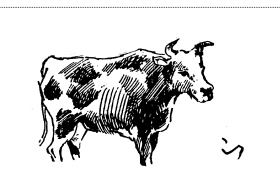
말 전년의 한·육우는 43만 9000마리 로 2005년보다 61.1%(16만5000마리)나 증가했다. 과잉이 우려될 정도다.

지리산 순한 한우와 녹색한우, 함평천지 한우, 영암 매력한우, 담양 대숲맑은한우 등 지역 브랜드 한우들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품질과 안전성에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한 고비 넘었나 싶었는데 또 다른 북병이 등장했다. 미국이 한·미 FTA 체결 상에서 쇠고기 시장도 더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익의 균형'을 깨는 퍼주기 협상은 더 이상 안 된다.

/정주시 정경부장 who@kwangju.co.kr

한우



기고

김일평



지난해 11월22일 영산강 6공구 승촌보 건설 현장에서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기공식)이 열렸다. 희망선포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지역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 중 가장 오염이 심각한 영산강을 맑은 물이 흐르는 새로운 강으로 바꿔놓겠다고 약속했다. 1000일 후면 영산강 발원지인 담양의 가마골 용소에서 목포 하구언까지 남도 삼백리 길을 굽어치며 흐르는 생명의 강물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실시했다. 내년 상반기면 모든 영산강변이 생태와 생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변신할 것이다.

과거 영산강은 남도의 젓줄이자 자존심이었다. 각종 물자를 실은 배들이 목포와 영산포, 나주를 거쳐 광주까지 실 새 없이 오갔다. 영산강은 광주·전남 경제의 중심이었고,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지금 영산강은 우리의 무관심 속에 중병을 앓고 있다. 상류에 농업용댐이 만들어지고, 하구둑이 건설되면서 수량이 크게 줄었다. 반면 광주시나 영산강변 도심의 인구증가로 영산강으로

영산강 희망선포식 이후 1년

또 오염된 물이 맑은 물로 바뀌고, 사시사철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르며, 각종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과 아이들이 먹감는 모습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도 했다.

그리고 희망선포식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영산강은 엄청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희망선포식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35%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 보 공정은 이미 70%를 넘어섰으며, 준설도 전체의 55%를 완료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말까지 전체공정 60%를 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와 준설 등 주요 공정 완료가 가능한 할 전망이다. 준설은 올해 말까지 90%이상, 보 공정은 80%이상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청은 목표달성을 위해 역공정 계획을 세워 월간·주간·일일 공정을 점검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에 앞서 영산강사업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산강변을 주민들의 레저와 휴식공간으로 바꿔놓을 영산강 8경 등 수변생태공간 조성사업과 자전거길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영산강 5공구 현장에서 나주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변 생명의 나무심기 행사

를 주도했다. 흐르는 물은 좋고, 오염원은 증가하다 보니 오염의 가속화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영산강은 또 오랜 기간 방치된 탓에 강바닥 곳곳에 퇴적토가 쌓이거나 잡목이 우거져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전체 강폭은 400~600m에 이르지만 물이 흐르는 구간은 50m도 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지역민에게 영산강은 더 이상 젓줄이 아니다. 악취를 풍기고 홍수 위험에 마음 졸이게 하는 불청객일 뿐이다.

이처럼 병들어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영산강을 다시 맑은 물이 넘치게 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바꾸기 위한 대수술이 영산강살리기 사업이다.

2조8000억 원을 투입해 강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걷어내 물길을 열고, 보를 설치해 부족한 수량을 확보한다. 또 강변에 위치한 농경지 등을 정비하고, 하수처리장과 총인처리시설 등 설치해 수질개선에도 나선다.

여기에 나무터 복원과 자전거길 조성, 수변생태공간 조성사업 등을 통해 영산강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레저와 휴식공간으로 태어나게 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국토를 새롭게 창조하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명품 영산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법조칼럼

김준섭



길지 않은 검사 생활이지만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돌아가시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죽음일 경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검사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 죽음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수사의 주체자인 검사로부터 세심한 관찰을 받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죽음인지를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신뢰도가 높은 방

한 비슷합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부인, 형제자매들입니다. 가족들과의 인연에 감사하고 먼저 가는 것을 미안해 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고마운 사람이 가족을 남겨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근무할 때 만났던 유서에서 처음으로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가족들도 버린 중환자였던 사람이 친구가 병원비를 납부하면서 끝까지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중환자는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세상을 등졌습니

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원망은 없었습니

검사가 만난 유서

법은 자필로 작성한 유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필로 유서를 작성하고 맞은 죽음은 대체로 범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수백 통의 유서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유서를 볼 때마다 숙연한 마음이 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작성한 유서에는 삶에 대한 많은 진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령과 직업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하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입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사랑함의 대상 또

다. 그 이외에는 친구가 등장인물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내용, 그리고 그 대상이 가족이라는 사실 앞에서 저는 삶을 '살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저 또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작성하게 될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입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좀 더 자주 표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광주지검검찰청 검사>

여성들 출산 후 직장 다닐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성들이 출산 후 마음 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육아환경은 미흡하다.

미국의 세 자녀를 둔 한 여성은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한다. 다른 직원들은 온종일 일하고 밤새워 근무하지만 이 주부는 마미트랙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마미트랙 제도는 얼마 직장인들이 회사 내 고위직을 향한 경쟁에서 스스로 물러나 낮은

직책에 만족하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직장 여성들이 육아와 일을 함께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 선택은 전적으로 주부의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마미트랙이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도입·정착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이 불편 없이 육아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굳이 자녀 출산을 기피할 이유가 적기 때문이다. ▲윤석천·광주시 남구 월산5동

농촌 도로 질주 네발 오토바이 사고 방지책 필요

최근 친척 결혼식이 있어 고향에 다녀왔다. 그런데 네발 오토바이가 아스팔트 도로에서 느린 속도로 위험천만하게 달리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친구에게 물어봤다. 네발 오토바이는 경운기나 트랙터와 달리 농업용기기로 분류되지 않아 차량등록을 할 수 없을뿐더러 농로 이외의 도로주행은 불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운전자를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위험성도 크다.

매년 수천 대이상 네발 오토바이가 판매된다고 한다. 대부분 농촌으로 팔려나간 것이라고 하니 많은 농민이 위험 속에서 네발 오토바이를 타고있는 셈이다.

행정당국은 네발 오토바이의 농촌 운행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지침을 마련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큰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심희수·광주시 북구 대충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